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갑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을



- ① 갑: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과 풍속의 실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
- ③ 을: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④ 을: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⑤ 갑, 을: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이론의 정립에 주력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과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부정의가 발생한다.
- ㄴ. 개인의 도덕적 자각이 그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 ㄷ. 집단 간의 갈등은 양심과 선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 ㄹ.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백 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은 이웃 나라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을: 세 개의 갈대가 땅 위에 서려면 서로 의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을 연기(緣起)라고 하며, 중생은 이를 잊지 말고 지혜롭게 살피야 한다.

- ① 갑: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여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불성(佛性)을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③ 을: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정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이상적인 삶을 위해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어느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해 태어날 생쥐의 성별을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수정 단계에서부터 특정 염색체끼리 결합하도록 인간이 임의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학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각종 동물의 형질을 개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유전적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 ... (후략).

- ① 윤리적인 원칙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인간의 형질 개량을 위해 제한 없이 활용해야 한다.
- ③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④ 과학자의 전문적 지식에 따라 비판 없이 이용해야 한다.
- ⑤ 인류의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5. 그림은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형성 평가이다. 학생의 답이 옳게 표시된 것만을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형성 평가

2학년 □반 이름: ○○○

※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를 하시오.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요소이다.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며,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행위를 해야 한다.

- 주장1: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시해야 한다.
예 ☐ 아니요 ☒ ㉠
- 주장2: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예 ☒ 아니요 ☐ ㉡
- 주장3: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예 ☐ 아니요 ☒ ㉢
- 주장4: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
예 ☒ 아니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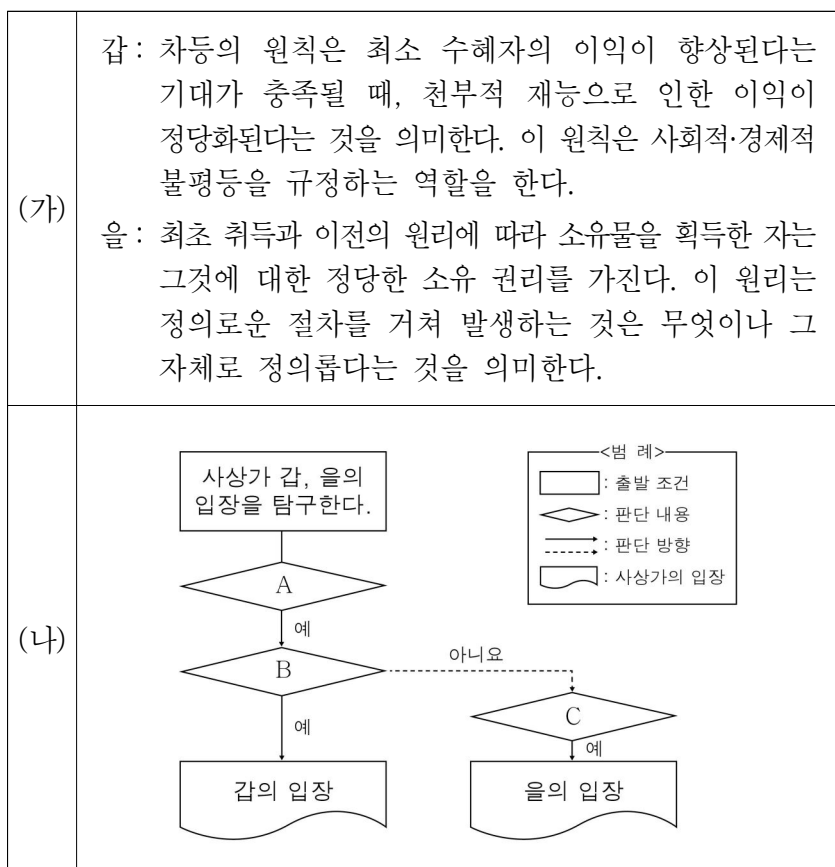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性)적 관계는 서로의 인격 존중이 중요하므로 자발적 동의와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성적 관계는 인격적 교감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갑: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의 성적 관계는 타인의 인격과 하나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관계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을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사회 구성원들을 재생산하여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자발적 동의만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① 성적 관계는 자발적인 동의만 있으면 정당한가?
- ② 성적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 ③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④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운가?
- ⑤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 ㄷ. B: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하는가?
 - ㄹ. C: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법은 공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성이 향유하는 자유나 권리를 여성에게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은 남녀 간 지성의 차이를 본성에 의해 규정하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본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으며, 인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한다면 사회는 더욱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남녀의 본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성차별은 여성의 능력을 억압하여 인류 발전을 저해한다.
- ④ 인간의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⑤ 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누구나 한때 배아였으며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과정 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의 경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따라서 배아 복제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므로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을: 우리가 한때 배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도 복제 배아였던 적은 없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복제에 의한 인공물인 복제 배아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는 비난할 수 없다.

- <보 기>
- ㄱ. 갑: 인간 배아는 인간이 아닌 단순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 ㄴ. 갑: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ㄷ. 을: 복제 배아를 이용한 인간의 질병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 ㄹ. 갑, 을: 인간 배아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을: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급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이며, 각 계급에 적합한 덕목을 실천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① 갑: 군자는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능통해야 한다.
- ② 갑: 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
- ③ 을: 사회적 역할은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 ④ 을: 모든 계급이 재산을 공동 소유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
- ⑤ 갑, 을: 사회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11. 다음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를 옛 성인(聖人)이 걱정하여 인륜을 가르쳤으니, 그 내용으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부부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서로 공경해야 한다.	√	√		√	
자식은 이해(利害) 관계에 따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		√		√
형제자매는 친애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		√	√
친구 사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가)의 입장에서 (나)의 결과를 분석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면,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판명되더라도 진리 탐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 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결과 >

(%)

의견	찬성(A)	반대(B)	기타(C)
의견 (%)	80.1	11.4	8.5

A: 찬성
B: 반대
C: 기타

* 존엄사 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① A 의견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 ② A 의견은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③ B 의견은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 ④ C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을 제한해야 한다.
- ⑤ B 또는 C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A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생활과 윤리 인물 정보

시민 불복종 사상가

이름 :

주요 저서 : 『정의론』

시민 불복종의 주요 내용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나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복종 행위가

㉠

- 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정치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재산을 보존하고 상호 간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보 기>

ㄱ. 군주의 통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ㄴ.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위의 도덕 공동체이다.

ㄷ. 명시적 동의만이 정치적 복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ㄹ.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복지에 대한 공헌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회의 하위 체계로서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X: 자신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정도
- Y: 공익 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주주의 이익 증진만이 기업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뇌는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관리 하므로 뇌 기능의 정지는 인간 생명의 끝이다. 또한 뇌사를 인정하면 장기 이식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을 :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더라도 심장 박동이 지속된다면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 또한 죽음을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장기 기증을 위해 뇌사 판정이 남용될 것이다.

- ① 갑: 심폐 기능의 완전한 정지만이 죽음이다.
- ② 갑: 뇌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일 뿐이다.
- ③ 을: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 ④ 을: 뇌사를 죽음에 대한 판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1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떤 개체가 욕구, 지각, 기억, 쾌락과 고통의 감정 등을 지니고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며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가진 존재는 결코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나)	학생: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정당하나요? 사상가: 동물 실험은 ㉠ 정당하지 않습니다.

- ① 인간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 ②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해야 하므로
- ③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 ④ 동물이 지니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 ⑤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18.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큰 도(道)가 행해진 세상에서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청년에게는 일할 자리가 있다. 과부, 홀아비, 고아, 병든 사람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화가 땅에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보 기> -

- ㄱ. 군주는 인의(仁義)의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ㄴ. 군주는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 ㄷ. 군주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ㄹ. 군주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갑: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관여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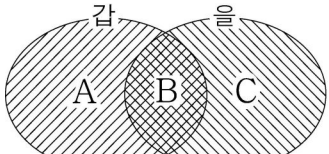
을: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일 뿐이다.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 <보 기> -

		인간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예	아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 |
|---|----------|----------|---|----------|----------|
| | <u>갑</u> | <u>을</u> | | <u>갑</u> | <u>을</u> |
| ① | A | B | ② | A | C |
| ③ | B | A | ④ | C | D |
| ⑤ | D | C | | | |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인간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므로 종신 노역형 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을 : 형벌은 결코 범죄자나 시민 사회를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단지 누군가의 의도를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만 취급될 수 없으므로 형벌은 항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기> -

- ㄱ. A :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ㄴ. B : 형벌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ㄷ. B : 사회적 유용성이 전혀 없는 형벌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ㄹ. C :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